

독일어의 문법적 주어기능에 관한 이론적 고찰

신 수 송

0. 서 론

독일어에서 주어가 갖는 문법적 기능(SUBJ)은 일반적으로 영어와 같은 형상구조 언어가 갖는 주어의 문법적 기능어와는 달리 구조적으로 단일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어 주어의 문법적 기능을 단순히 구조적으로 기술하는 문제를 넘어 주어가 갖는 의미역(Theta-Role)과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주어의 다양한 문법적 현상을 언어 보편적인 의미역구조로부터 설명하려고 한다. 특히 문법적인 주어가 나타나지 않는 예문들의 통사적인 구조를 검토하고 문법적인 주어가 의미역 구조로부터 유도되는 과정에서 일련의 어휘규칙에 의해 삭제된 사실을 논의 할 것이다. 먼저 독일어의 전통문법에서 문법적 주어와 심리적 주어의 불일치에 대한 주장을 검토하고 나아가 종래의 Thema-Rhema 구조나 Topic-Comment 구조의 문장분석에서 주어를 Thema 혹은 Topic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존하는 문법이론 중 변형생성문법 이론과 어휘기능문법 이론을 가지고 독일어 주어의 기술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끝으로 문법적 주어란 술어의 추상적인 개념구조인 의미역 구조에서 특정한 의미역이 어휘적 사상(lexical mapping)을 통하여 유도된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1. 독일어에서의 주어에 관한 전통문법 연구

전통적인 독일어 문법연구에서는 문장은 주어부와 술어부로 구성되고 주어는 임의의 대상이나 존재(sein)를 나타내며 그리고 술어는 이 주어의 활동을 서술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K.-F. Becker (1843)나 H. Paul (1919)의 이러한 주어와 술어에 대한 정의는 심리적 정의로서 구체적으로 문장에 나타나는 문법적인 주어와 일치되지 않음을 다음의 인용문이

명시하고 있다. (Paul 1919:12)¹

“문장은 적어도 두 개의 성분으로 구성된다. 이 두 성분은 그러나 동일한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하나의 성분은 화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성분은 이 성분과 연결된 것이다. 전자를 우리는 심리적 주어로, 그리고 후자를 우리는 심리적 술어로 칭한다. 이들 성분들은 문법적 주어나 혹은 술어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mich friert, mir graut, aller guten Dinge sind drei와 같은 문장들에서 mich, mir, 그리고 aller guten Dinge 등은 상이한 격형태소를 갖지만 동일한 심리적 주어로 기능한다.”

심리적 주어와 문법적 주어의 동일하지 않다는 독일 전통문법의 주장은 독일어의 문장들 중 문법적인 주어의 심리적 주어로 간주할 수 없는 (2a-f)와 문법적인 주어의 전혀 나타나지 (1a-f)를 검토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1) a. Ich weiß, daß samstags gearbeitet wird.
 a'. *Ich weiß, daß es samstags gearbeitet wird.
 b. Weil ihm geholfen wurde, ...
 b'. *Weil es ihm geholfen wurde, ...
 c. Weißt du, daß heute zu ist?
 c'. *Weißt du, daß es heute zu ist?
 d. Wurde gestern hier getanzt?
 d'. *Wurde es gestern hier getanzt?

(1a, b)의 경우 부문장에서 자동사의 수동문은 허사인 주어 es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자동사의 수동문이 의문문일 경우 허사인 주어 es가 나타날 경우 (1d')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역시 비문이 된다. (1c)의 경우 부문장이 능동문인데도 허사인 주어의 허용하지 않는다. 이들 예문의 경우 문법적인 주어의 아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인 주어의 무엇인가를 밝히는

¹ 이 인용문은 Eisenberg (1994:278)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Ein Satz besteht daher mindestens aus zwei Gliedern. Diese verhalten sich nicht gleich. Das eine vertritt die Vorstellung..., die zuerst in der Seele des Sprechenden vorhanden ist, das andere die daran neu angeknüpfte. Die erstere bezeichnen wir als das psychologische Subjekt, die letztere als das psychologische Prädikat. Diese brauchen nicht mit dem grammatischen Subj. oder Präd. identisch zu sein... So sind in den Sätzen mich friert... mir graut, aller guten Dinge sind drei die verschiedenen Kasusformen... die psychologische Subjekte oder Prädikate zu sein.”

문제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다음 예문들을 보자.

- (2) a. Es regnet. Es schneit. Es donnert.
 a'. ..., daß es regnet. ..., *daß regnet.
 b. Es graut mir. Mir graut.
 b'. ..., daß mir graut. ..., *daß es mir graut.
 c. Es friert den Jungen. Den Jungen friert. Der Junge friert.
 c'. ..., daß den Jungen friert. ..., daß den Jungen friert.
 ..., *daß es den Jungen friert
 d. Es hungert mich. Mich hungert.
 d'. ..., daß mich hungert. ..., *daß es mich hungert.
 e. Hier plaudert es sich gut.
 e'. ..., daß es sich hier gut plaudert. ..., *daß sich hier gut
 plaudert.
 f. Es fährt sich schlecht auf dieser Autobahn.
 f'. ..., daß es sich schlecht auf dieser Autobahn fährt.
 ..., *daß sich schlecht auf dieser Autobahn fährt.

(2a)의 예문들은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비인칭 주어 es가 어휘적인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문법적 주어와 심리적 주어가 일치 되지 않고, 나아가 심리적 주어를 무엇으로 정의해야만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또한 (2a')의 부문장구조에서 비인칭 주어 es를 생략하면 비문이 되는 것으로 보아 예문 (1b'-d')의 경우처럼 es가 단순히 허사주어처럼 보이지 않는다. 한편 예문 (2b'-d')에서 부문장이 자동사의 수동문이 아닌데도 es가 나타날 경우 비문법적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es는 문법적인 주어도 심리적인 주어도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독일어의 전통문법에서는 (2b-f)의 예문들을 풀어쓰기(paraphrase) 방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예를 들어 Es graut mir를 Ich empfinde Grauen으로, Es reut mich를 Ich fühle Reue über meine Tat로, Es hungert mich를 Ich habe Hunger 등으로 변형함으로써 심리적 주어를 가정하였다. 또한 (2e)의 경우 술어의 의미가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심리적 주어를 술어를 명사화하여 표현함으로써 파악하였다. 즉 Hier plaudert es sich gut은 Das Plaudern geht hier gut (vonstatten)으로 풀어씀으로써 술어 plaudert가 되풀이 되는 사건으로써의 주어 Plaudern이 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2f)에서는 술어 부인 sich auf dieser Autobahn fährt가 역시 하나의 되풀이되는 사건으로서의 주어 Das Fahren auf dieser Autobahn이 된다. (2e-f)에서도 부문장에서 es의 생략이 비문을 만들기 때문에 es가 과연 이러한 사건진행으로서

의 심리적 주어를 대신하는 지가 문제시 된다. 이러한 예들은 현존하는 문법이론들, 예를 들어 변형문법이나 의존문법 혹은 어휘기능문법의 틀 안에서 기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본다.

이상에서 논의한 주어를 문법적 주어와 심리적 주어로 구분하여 연구하려는 노력과는 달리 주어에 대한 문법적 기능을 문장의 Thema나 혹은 Topic으로 보려는 노력을 우리는 독어학 연구에서 간과할 수 없다. (Heidolph/Flämig/Motsch 1981:730)

- (3) a. Auf dem Berliner Alexanderplatz-steht-die bekannte Weltuhr.
 b. Diese Uhr ist Anziehungspunkt für viele Besucher.
 [Thema]
 Subject

예문 (3a)에서 die bekannte Weltuhr는 (3b)에서 [Thema]로 등장하고 또한 이 [Thema]는 주어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어와 [Thema]의 일치가 독일어의 서술문장에서 자주 등장하더라도 주어를 [Thema]로 대치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반례를 바로 보게 된다.

- (4) a. Schon im Altertum konnten die Menschen Eisen bearbeiten.
 [Thema]-Adjunct
 b. Die Menschen konnten schon im Altertum Eisen bearbeiten.
 [Thema]-Subject
 c. Eisen konnten die Menschen schon im Altertum bearbeiten.
 [Thema]-Object
 d. Bearbeiten konnten die Menschen schon im Altertum Eisen.
 [Thema]-Hauptverb

예문 (4a-d)는 독일어 문장구성소들 중에 정동사를 제외한 어떠한 구성소도 [Thema]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주어는 물론 목적어나 부사구(Adjunct), 그리고 심지어 복합술어의 본동사까지도 [Thema]기능을 갖고 문두에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와 [Thema]를 일치시키는 노력은 처음부터 좌절되고 만다.

다음으로 독일전통문법에서 등장하는 주어에 대한 기술은 주어를 의미역들 중 행위자([Agent])에 일치시키려는 노력에서 볼 수 있다. 즉 주어로 등장하는 명사구들이 행위자를 나타내는 예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의 예들은 주어로 등장하는 명사구들이 행위자 이외의 다양한 의미역을 가질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 (5) a. Der Hund wurde geschlagen.
 b. Heidelberg liegt am Neckar.
 c. Der Turm droht zu stürzen.
 d. Maria scheint glücklich zu sein.

(5a)는 주어인 der Hund가 geschlagen으로부터 대상 의미역 ([Theme])을 받게 되고 (5b)에서 Heidelberg는 liegt로부터 역시 대상의미역을 받는다. (5c, d)의 droht, scheint는 소위 인상동사들로서 der Turm이나 Maria에게 의미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부정사구문인 zu stürzen, glücklich zu sein이 이들에게 각각 대상의미역을 부여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der Turm, Maria를 예문 (5c, d)의 주어라는 명칭을 붙인다. 즉 주어는 항상 행위자 의미역을 갖는 것이 아니며 비인칭 동사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혀 의미역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독일어의 주어에 대한 잡다한 현상들을 고찰하여 보았다. 독일어의 경우 주어가 문장의 Thema에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심리적 주어로서의 의미역 ([Agent])과도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Becker나 Paul 등으로 대표되는 독일 전통문법 학자들의 문법적 주어와 심리적 주어의 구분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문법적인 주어와 심리적인 주어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문법상에서의 주어의 기능을 이론적으로 만족하게 기술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문법적인 주어를 심리적인 주어로부터 이론적으로 적절히 유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잡다한 주어현상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제시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모든 다른 문법기능어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현재로서 가장 발달한 언어이론인 어휘기능문법과 변형문법이 문법적인 주어기능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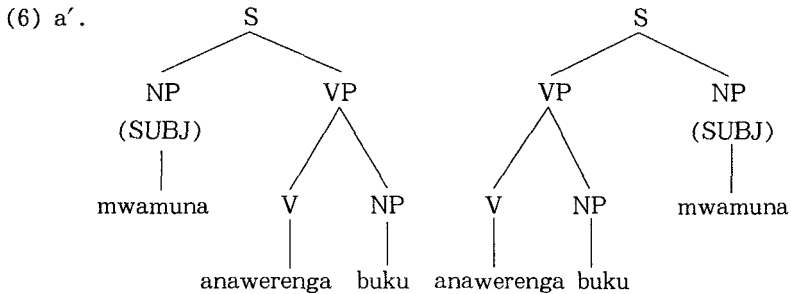
2. 어휘기능문법의 주어에 대한 연구

2.1. 언어 보편성으로서의 문법적 기능 SUB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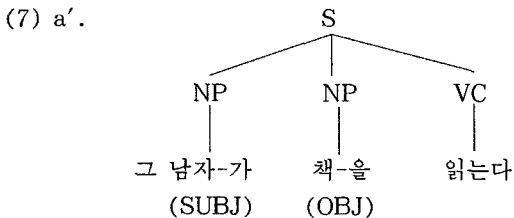
Bresnan/Kaplan으로 대표되는 어휘기능문법 연구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갖는 표층구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어에 등장하는 원초적 개념 (primitives)으로서의 SUBJ, OBJ, OBL 등을 가지고 언어보편적인, 이들 문법적 기능어들로 구성된 기능구조(f-structure)를 제시할 수 있었다. Chicheŵa, Welsh 그리고 우리말과 일본어의 예를 가지고 문법적 기능 SUBJ와 기능구조를 기술하여보자. (Sells 1985:153)

- (6) a. [_S[_{NP} mwamuna]][_{VP} anawerenga buku]] (Chicheŵa)
 the man read the book
 b. [_S[_{VP} anawerenga buku]][_{NP} mwamuna]] (Chicheŵa)
 read the book the man
 “The man read the book.”
- (7) a. [_S[_{NP} 그 사람이]][_{NP} 책을][_{VC} 읽었다]]
 b. [_S[_{NP} sono otoka ga]][_{NP} hono][_{VC} yonda]] (Japanese)
- (8) [_S[_V darllenodd]][_{NP} y dyn][_{NP} y llyfr]] (Welsh)
 read the man the book
 “The man read the book.”

Chicheŵa 언어에서는 (6a, b)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어인 NP는 VP의 좌측 혹은 우측 어느쪽에 위치하더라도 문법적이다. 즉 구조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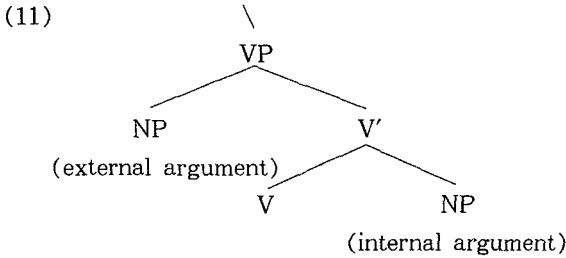


국어나 일본어의 경우 주어가 형태소 어미에 의해 식별되기 때문에 술어 동사 혹은 술어형용사의 위치가 고정된 문장 마지막 위치를 제외하고 주어 NP는 어떤 위치여라도 나타낼 수 있다.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조적으로 나타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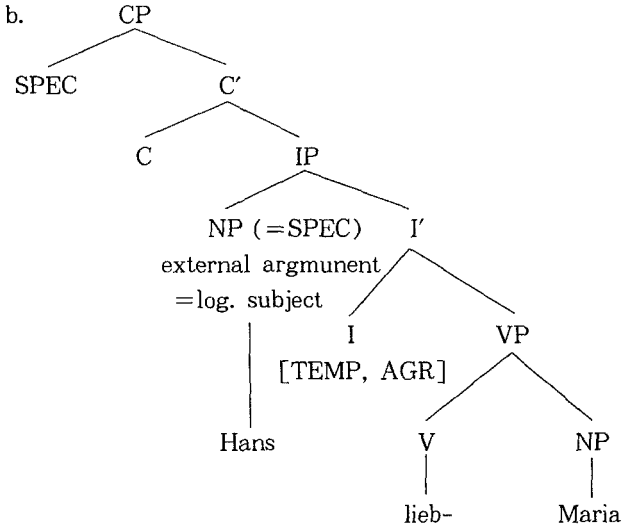
다음 Welsh의 경우 동사가 자신의 보족어인 명사구들에 비해 문장의 제일 좌측에 위치하고 바로 다음에 주어인 명사구가 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언

즉 문장범주 S에 직접 관할되는 NP와 VP는 각각 논리적 주어와 술어이고, VP에 직접 관할되는 NP는 논리적 목적어로 구조상 정의되었다. 이와 같은 심층구조상에서의 논리적 주어와 목적어는 그후 80년대의 GB-이론, Barriar 이론과 90년대의 Economy 이론, Minimalist 이론에 이르기 까지 동사가 취하는 외재논항과 내재논항의 의미역관계로서 파악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의존문법에서 볼 수 있는 일종의 동사의미에 주어진 Valenz (원자가)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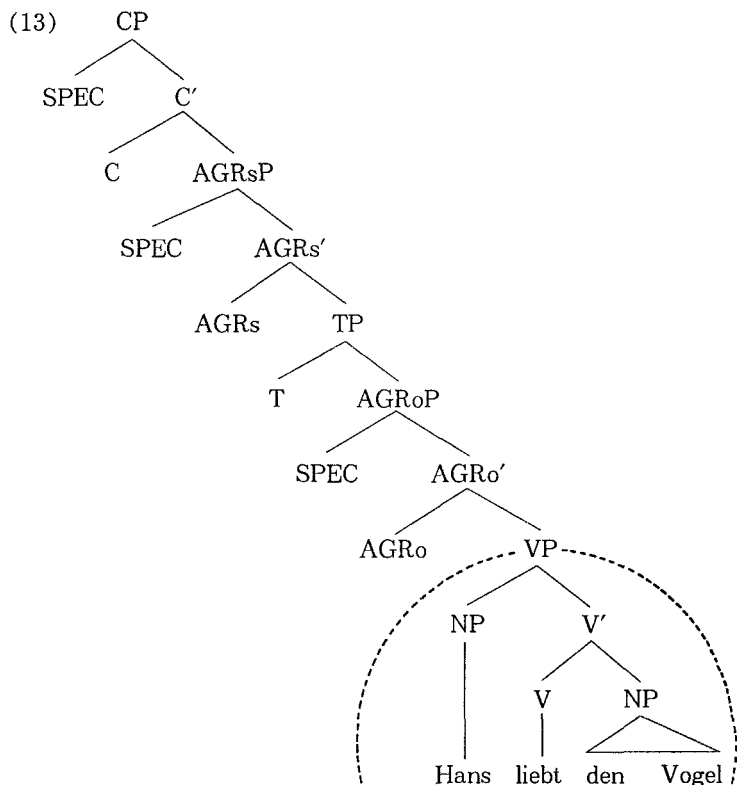
변형문법의 발전과정에서 논리적 주어의 인칭과 수가 동사의 시제형태어미의 변화와 일치하는 현상으로부터 표층구조의 문법적인 주어가 유도되는 기술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장벽이론(Barriar Theory)과 최소이론(Minimalist Theory)의 구조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예문 (12)를 가지고 장벽이론으로 이 과정을 기술하여 보자.

(12) a. Hans liebt den Vog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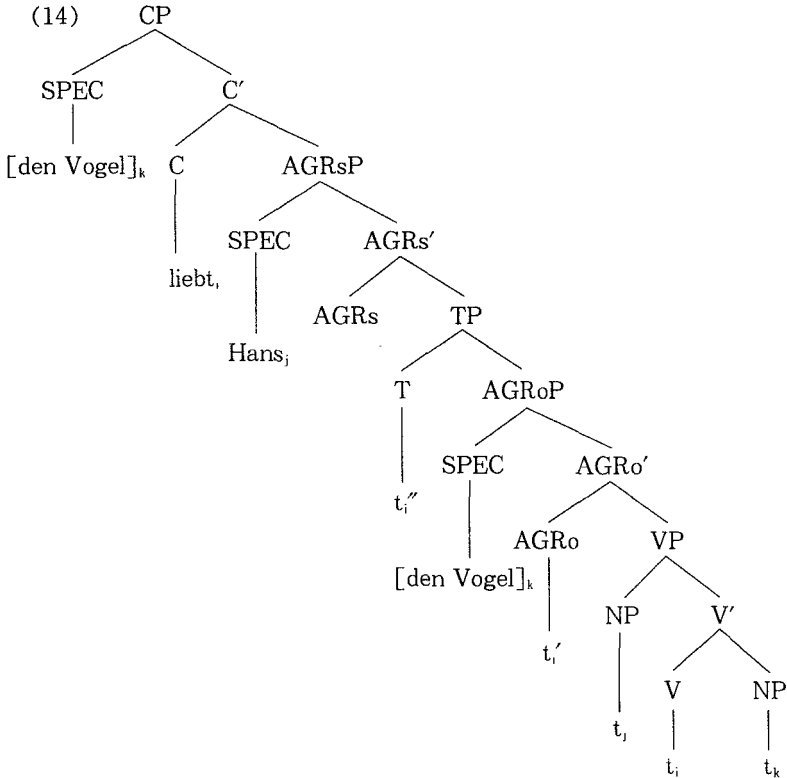
(12b)는 D-구조로서 유일하게 의미역 할당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IP의 SPEC 위치에 걸려있는 주어인 NP는 V의 외재논항으로서 VP로부터 의미역 [Agent]를 할당받는다. 다음으로 이 NP는 SPEC-HEAD Agreement에 의해 I와 수 및 인칭자질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S-구조의 문법적 주어론을 유도하는 과정이다.

최근의 최소이론도 다음 구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어에 있어서 주어의 경우는 궁극적으로 동사에 의해 표층구조상에서 표현되는 문장의 시제와 격 그리고 인칭, 성 및 수의 일치를 허용하고 목적어의 경우는 시제일치를 제외한 인칭, 성, 수의 일치를 요구한다. 독일어의 주문장의 경우 영어와 동일한 어순 즉 SVO를 갖기 때문에 예문 Hans liebt Maria의 구성어휘들이 소위 연산구조(computational system)에 도입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Larson (1988) 등의 동사구 내부주어 가설에 따라 점선으로 구획지워진 부분은 어휘범주와 그 최대투영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언어보편적인 의미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즉 den Vogel은 liebt의 내재논항으로서 의미역

[Patient]/[Theme]을 그리고 Hans는 외재논항으로서 의미역 [Agent]를 갖는다. 다음으로 기능범주 AGRs, AGRo, T, C 등과 이들의 최대투영체는 개별언어들의 특수한 문법적 구조를 반영하는 매개변인(parametrization)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독일어의 경우 C 범주에 시제자질이 있다는 사실이 그동안의 연구결과 (Travis (1991), Stechow/Sternefeld (1989), Bayser (1989), 신수송 (1988) 등)를 통해 밝혀지게 되었다. 또한 AGRs, AGRo와 이들의 최대투영체는 동사와 이 동사의 보족어로 등장하는 주어, 목적어와의 격, 인칭, 수 및 성의 일치를 요구하는 기능범주이다. 따라서 *liebt, Hans, den Vogel* 등은 개념적 단위로부터 구체적인 문장의 말소리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들이 문장에서 갖게 되는 시제, 격, 인칭, 성, 수 등을 개별언어의 특성, 즉 독일어에 맞게 구조적으로 점검받는 일이 필요하고 이러한 필요성은 모든 언어에 이동- α 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조(14)에서 자질점검은 동사와 주어, 동사와 목적어의 자질점검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동사 *liebt*,와 내재논항인 *den Vogel*_k와의 자질점검을 보면

den Vogel_k이 AGRoP의 SPEC 위치로 이동하고 liebt_i가 AGRo의 위치로 이동하여 지정어-핵심어(SPEC-HEAD)관계를 이루고 이때 지정어인 den Vogel_k이 목적어로서 갖게 되는 대격([+ACC]) 자질과 ϕ 자질 즉 성, 수, 인칭 등의 자질들이 핵심어인 liebt_i가 AGRo에서 갖게 되는 통사적인 속성으로서의 자질들과 일치되는 지가 점검된다.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자.²

(14) a.	SPEC-AGRoP,	AGRo
	t_k	t_r
	(den Vogel _k 의 이동흔적)	(liebt _i 의 이동흔적)
	ϕ	ϕ
	[+ACC]	[+ACC]

다음으로 동사 liebt_i와 외계는항인 Hans_i와의 자질점검을 보면 Hans_i가 AGRsP의 SPEC 위치로 이동하고 liebt_i가 AGRs의 위치로 이동하여 역시 지정어-핵심어(SPEC-HEAD)관계를 이루고 이때 지정어인 Hans_i가 주어로서 갖게 되는 주격([+NOM]) 자질과 ϕ 자질 즉 성, 수, 인칭 등의 자질들이 핵심어인 liebt_i가 AGRs와 그리고 T의 위치에서 갖게 되는 즉 AGRs+T의 통사적 속성으로서의 자질들과 일치되는 지가 점검된다.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자.

(14) b.	SPEC-AGRsP,	AGRs+T
	t_i	t_r
	(Hans _i 의 이동흔적)	(liebt _i 의 이동흔적)
	ϕ	ϕ
	[+NOM]	[+NOM]

SPEC-AGRsP로 이동해 온 Hans_i는 AGRs의 위치로 이동해 온 liebt_i로부터 ϕ 자질을 점검받으며 T로부터 주격(+NOM) 자질을 점검받는다. 최소이론의 연구는 실제로 영어나 불어에서 AGR의 명사구 자질이 약하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가 동사와의 자질일치 점검을 위해 AGRoP, AGRsP의 SPEC 위치로 이동해 갈 필요가 없지만 T가 갖는 명사구 자질이 강하기 때문에 AGRs+T가 하나의 핵범주를 형성하고 이 핵범주의 SPEC-AGR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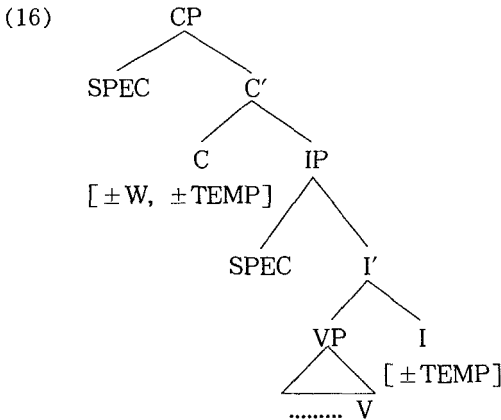
² 최소이론에서 제시된 이동- α 에 따르는 제반 원리, 예를 들어 Principle of Procrastinate (Chomsky 1992:43), Principle of Greed (Chomsky 1992:47), Principle of Shortest Link (Chomsky 1992:21) 및 Equidistant Condition (Chomsky 1992:24) 등은 이 논문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다.

위치로 주어가 이동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연구는 그대로 독일어에도 적용되어 (14)에서 Hans가 SPEC-AGRsP로 이동하게 된다.

다음으로 AGRs+T에 있는 liebt는 독일어의 정동사 두번째 위치현상 (Zweitstellung des finiten Verbs)을 만족시키기 위해 C의 위치로 이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독일어에서 문장의 두번째 위치는 무엇이고 왜 정동사가 독일어에서 반드시 이 두번째 위치에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 다음은 신수송(1988:83)에서 독일어 전통문법의 위상적 장 이론(topologische Feldtheorie)에 근거한 정동사의 분포를 기술한 것이다.

(15) Vorfeld	linke Satzklammer	Mittelfeld	rechte Satzklammer	Nachfeld
ich	komme	heute nicht		
	kommst	du morgen?		
morgen	will	ich nicht	kommen	
Warum	kommst	du morgen nicht?		
Herbert	stellte	die Heizung	ab	
	daß	ich heute nicht	komme	
	weil	es	zutrifft	daß er trinkt
	statt	ihm	zu folgen	

위의 자료에서 우리는 정동사 will, kommst, stellte 등이 접속사 daß, weil, statt와 동일한 통사적 분포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통사적 분포는 신수송(1988:97)에서 다음과 같이 구조적으로 기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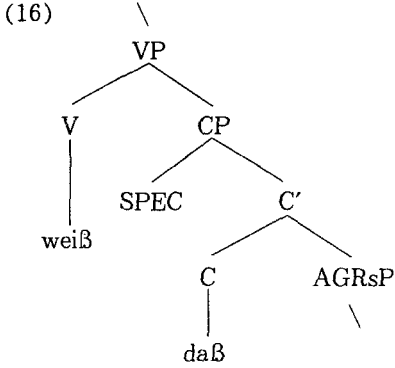


(16)에서 I범주와 C범주는 동일한 [\pm TEMP]을 갖는다. C범주의 [+W, -TEMP]은 먼저 부문장의 접속사가 주문장 동사의 특성에 따라 선택되는 경우 접속사가 바로 이 위치에서 실현되는 것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부문장의 경우에는 이미 C범주에 접속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정동사가 문장의 두번째 위치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주문장의 경우 의문사나 주제역을 가진 명사구가 문두에 나타나고 정동사가 문장의 두번째 위치에서 실현되는 현상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V범주의 어휘는 I범주로 이동하여 문장이 나타내는 특정한 시제의 형태소와 결합하고 주어와 성, 수 및 격의 일치를 보고 문장의 두번째 위치인 C범주로 이동한다. 이와 같은 이동의 동기는 C와 I가 동일한 [+TEMP]자질을 갖기 때문이며 I범주로 이동한 V는 다시금 C까지 이동하여 정동사 두번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때 주어는 특정한 주제어가 문두에 실현되지 않는한 주제어로서 정동사 앞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제 Chomsky (1993)의 최소이론에 따라 I범주의 자질 [+TEMP, +AGR]을 AGR과 T로 각각 기능범주화 하였을 경우, 영어와 불어에서 V가 T로 이동하는 이유는 T가 갖는 명사구 자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어의 주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가정은 독일어의 주문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음으로 T까지 이동한 V가 독일어에서 다시금 C까지 이동하는 이유는 C가 갖는 시제자질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C범주가 상위문장 동사의 어휘적 특성에 따라 선택된 접속사가 사전으로부터 직접 연산구조에 삽입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C는 자기와 동일한 시제자질을 갖는 I범주로 이동한 V를 이끌어 가고 자신의 위치에서 성분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주제문 등의 주문장 유형을 점검할 것이다. 이상의 방법으로 (14)에서 문장 첫번째 위치에 있는 주제화된 [den Vogel]_k과 두번째 위치에 있는 정동사 liebt, (V-2)의 이동을 점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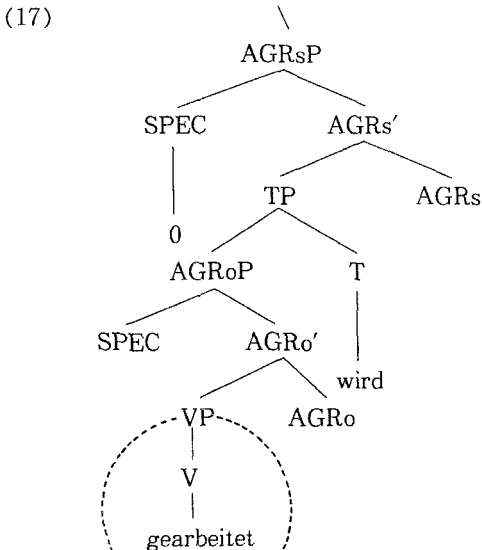
(14) c.	SPEC-CP	C
	Hans,	liebt,
	TOPIC	V-2-Position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변형문법이론에 의한 독일어의 주제화 현상 (4a-d)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제기한 (1a-d), (2a-d)의 주어가 나타나지 않는 독일어의 자동사 수동문, grauen, frieren 따위와 같은 동사를 포함하는 문장, 비인칭 주어틀 가진 문장에서의 실제적인 주어기술이 변형문법이론으로 결코 쉽게 기술될 수 없음을 단계적으로 논의하여 보자. 예문 (1a)의 부문장 구조는 최소이론으로 다음과 같이 그 유도과정이 기술된다.

(1) a. Ich weiß, daß samstags gearbeitet wurde.



먼저 부문장의 C범주는 상위문장의 동사 weiß로부터 특정한 접속사 daß를 어휘적으로 선택받고 어휘부로부터 직접 연산구조에 도입된다. 이때 C는 $[\pm W, \pm TEMP]$ 의 자질목록 중에서 $[-W, -TEMP]$ 가 선택되어 문장의 두 번째 위치가 접속사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곳으로 더 이상의 정동사 이동이나 SPEC-CP 위치로 의문사가 이동되는 것이 금지되고 이 문장은 정동사가 문미에 나타나는 부문장의 어순을 이룬다. 또한 자동사의 과거분사 gearbeitet는 보족어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역도 부여할 수가 없다. 이제 어휘범주로 구성된 하위의 VP 구조는 다음과 같은 점선으로 표시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어의 경우 허사주어인 *it* 혹은 *there*가 SPEC-AGRsP에 삽입되겠지만 독일어의 경우 허사주어 *es*를 삽입할 경우 모두 (1a' -d')에서 본 바와 같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 (1) a'. *Ich weiß, daß es samstags gearbeitet wird.
 b'. *Weil es ihm geholfen wurde, ...
 c'. *Weißt du, daß es heute zu ist?
 d'. *Wurde es gestern hier getanzt?

문제는 T범주에서 생성된 수동조동사 *wird/wurde*가 주어가 존재하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3인칭 단수 현재/과거의 형태를 갖는 데에 있다. 즉 주어가 어휘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또한 동사의 어미에서 주어의 존재를 알 수 있는 형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구조적으로 주어에 대한 기술이 불가능하게 보인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예문 (2a-f)에서 과연 주어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다시 한번 이 예문들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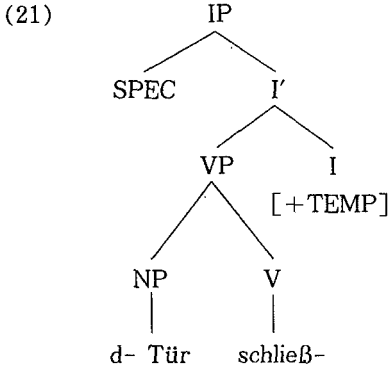
- (2) a. Es regnet. Es schneit. Es donnert.
 b. Es graut mir. Mir graut.
 c. Es friert den Jungen. Den Jungen friert. Der Junge friert.
 d. Es reut mich. Es hungert mich.
 e. Hier plaudert es sich gut.
 f. Es fährt sich schlecht auf dieser Autobahn.

(2c)에서는 3개의 문장이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갖는데 *Es friert den Jungen*과 *Den Jungen friert*에서는 *frieren*이 *den Jungen*을 대격보족어로 취하는 타동사로, *Der Junge friert*에서는 *frieren*이 *der Junge*를 주격으로 취하는 자동사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frieren*의 자동사, 타동사 구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음의 능격동사구문과 구분된다.

- (18) a. Der Mann schließt die Tür.
 b. Die Tür schließt.
 (19) a. Helmut trainiert die Fußballmannschaft.
 b. Die Fußballmannschaft trainiert.
 (20) a. Der Junge bricht das Glas.
 b. Das Glas bric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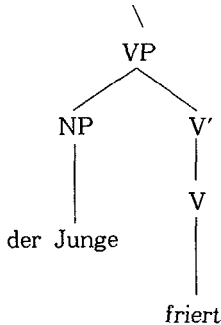
예문 (18a)에서 *schließt*는 *die Tür*와 *der Mann*을 취하는 타동사로 이들에게 각각 의미역 [Theme]과 [Agent]를 부여한다. 그러나 (18b)에서는

schließt가 die Tür를 주어로 취하지만 [Agent]의미역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18a)와 마찬가지로 [Theme]의미역을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능격동사의 경우 의미적으로는 타동사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취하는 보족어에 격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족어가 격을 부여받기 위해 주어의 위치로 이동함으로써 (18b)가 유도된 것으로 신수송 (1988:229f)은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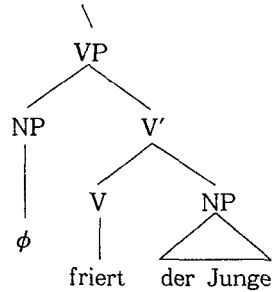


동일한 방법으로 (19a-b), (20a-b)도 그 유도과정이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능격동사 구문과의 구조적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의미역구조에 해당하는 최소이론의 연산구조 하부의 VP에 Der Junge friert를 도입해보자. 이 도입과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으로 제시된다.

(22)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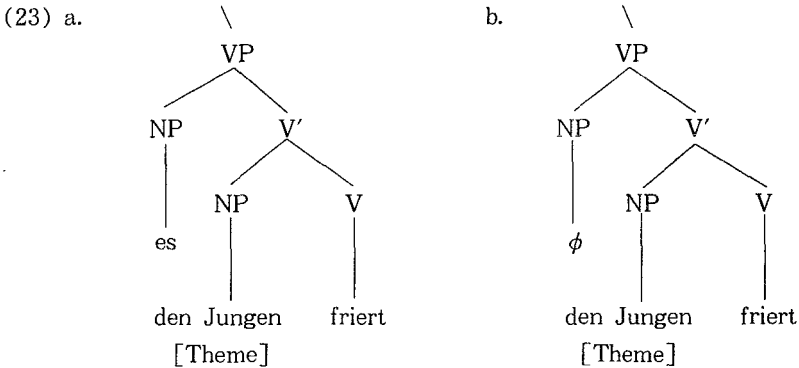
b.



der Junge가 VP 구조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VP의 내부주어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 (22a)와 V의 보족어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 (22b) 두 가지가 있다. 최소이론에서 명사구는 어휘부로부터 ϕ 자질, 즉 성, 인칭, 수 등의 자질과 [+WH] 등을 가지고 연산구조에 도입되기 때문에 통자자질의 성질로 미루어보아 (22a)가 타당하고 (22b)는 부당한 구조로 간주된다. 이

경우에 (22a)의 der Junge는 기능범주 AGRs+T로부터 주격자질과 ϕ 자질을 점검받기 위하여 SPEC-AGRsP로 이동하여 주어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22b)에서 V의 보족어 위치에 있는 der Junge가 목적어위치 즉 SPEC-AGRoP로 이동하지 않고 SPEC-AGRsP로 이동하여 주어가 된다면 VP 내부주어 가설에 따라 주어와 보족어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한편 동사 frieren을 능격동사와 같이 가정할 경우 자신이 취하는 보족어에 [Theme] 의미역을,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자에 [Agent]의미역을 부여해야만 하는데 (22a-b)구조들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2a)에서 SPEC-VP 위치는 외재논항이 차지해야 하며, frieren을 눈에 보이지 않는 외재논항에 [Agent]의미역을 그리고 보족어에 [Theme]의 의미역을 부여하는 능격동사로 가정할 경우 der Junge가 통사구조상 외재논항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Agent]의미역을 부여받는다고 한다면 이는 der Junge friert의 올바른 구조기술이 아니다.

다음으로 (2c)의 동일한 의미를 갖는 Es friert den Jungen과 Den Jungen friert의 유도과정을 최소이론으로 기술하여보자. 이 두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들을 연산구조의 하부 VP에 도입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23a-b)에서 frieren이 대격보족어 den Jungen을 취하고 이 보족어에 의미역 [Theme]을 부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외재논항이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자(Agent)이기 때문에 이 외재논항이 들어설 SPEC-VP 위치에 비인칭주어 es를 도입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야기된다. 만일 es가 행위자를 대신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es가 생략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인데 den Jungen friert가 정문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문제가 있다. 다른 한편 es를 생략하는 것이 수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den Jungen friert에서 friert의 통사자질(3인칭, 단수, 현재)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가 하는 점

은 독일어에 공범주 주어(Subject)를 허용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 경우는 (2a, e, f)에서 es를 생략하면 비문이 되는 다음의 경우와는 다르다.

- (2) a. *Regnet. *Schneit. *Donnert.
 e. *Hier plaudert sich gut.
 f. *Auf dieser Autobahn fährt sich schlec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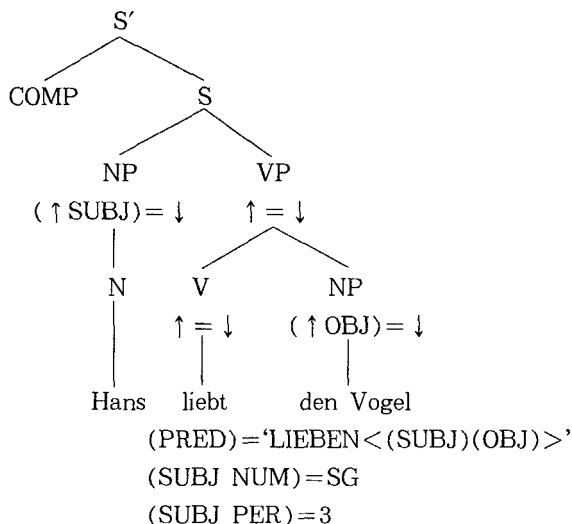
예문 (2a, e, f)의 경우 우리는 SPEC-VP 위치에 날씨나, 상황, 사건을 야기시키는 어떤 불명의 힘을 갖는 행위자를 가정하고 비인칭 주어인 es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휘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이러한 가상적인 행위자를 구조상에 예문 (1a-d), (2b-d)을 위해 설정한다고 하는 것으로 최소이론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될 것이다.

3. 의미역 구조로부터 문법적 주어의 유도

지금까지 우리는 개념상으로 존재하는 심리적 주어가 구조상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독일어의 예문 (1a-d), (2b-d)들을 보았다. 또한 개념구조인 의미역구조가 연산구조의 하부 VP 구조에 도입됨으로써 의미역구조를 하나의 통사구조로 간주하는 최소이론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개념구조인 의미역구조를 통사구조와는 독립된 추상적인 구조로 간주하고 개념구조의 의미역들이 통사구조의 문법기능에 대응되는 어휘기능 문법의 어휘사상이론을 통하여 예문 (1a-d), (2b-d)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고자 한다.

앞서 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휘기능문법에서는 주어의 개념을 언어 보편적인 원초적 개념으로 가정하고 언어에 따라 통사적으로 실현되는 양상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보았다. 독일어의 경우 주어는 통사적으로 구성구조(c-Structure)상에서는 동사에 의해 하위범주화되고 성, 수, 격 및 시제 자질이 동사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제시한 예문 (12a)를 가지고 이 관계를 설명하여보자.

(24) b.



이제 SUBJ인 Hans와 OBJ인 den Vogel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liebt의 의미역 구조로부터 사상된다.³

(25)	liebt	< Agent	Theme >
	intrinsic	-o	-r
	default	-r	--
		SUBJ	SUBJ/OBJ
w.f.		SUBJ	OBJ

(25)에 고유자질(intrinsic)로서 [Agent]에 [-o]이 그리고 [Theme]에 [-r] 자질이 주어진 이유는 의미역 [Agent]가 어떠한 통사적 환경에서도 동사의 목적어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을 나타내며, [Theme]의 경우 환경에 따라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가장 높은 의미역에 무

³ 표준 어휘기능문법에서 원초적인 개념으로 간주되었던 문법적 기능어 SUBJ, OBJ, OBL 등은 확대 어휘기능문법에서는 [+r(estrictive)], [+o(bjective)]와 같은 변별자질들로 분해된다. [+r] 자질을 갖는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제약은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 자질을 갖는 문법기능어는 특정한 의미역과 관계를 가지며, [-r] 자질을 갖는 문법기능어는 의미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역과도 연결될 수 있다. [+o] 자질을 갖는 문법기능어는 술어의 목적어로, [-o] 자질을 갖는 문법기능어는 술어의 목적어가 아닌 문법기능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문법기능어들은 다음의 통사자질 묶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 SUBJ [-r, -o] OBJ [-r, +o]
- OBL [+r, -o] OBJ_θ [+r, +o]

SG, (\uparrow SUBJ PER)=3만을 갖는 공주어가 될 뿐이다. 다음으로 수동분사인 gearbeitet는 역시 아무런 논항을 취하지 않으며 기능등식 (\uparrow VCOMP SUBJ)=(\uparrow SUBJ)에 의하여 wird가 취하는 주어를 자신의 주어로 만든다.

다음으로 문법적 주어 존재하지 않는 통사구조의 문법기능어들이 어떠한 의미역 구조로부터 유도되어 나온 것인지를 고찰하여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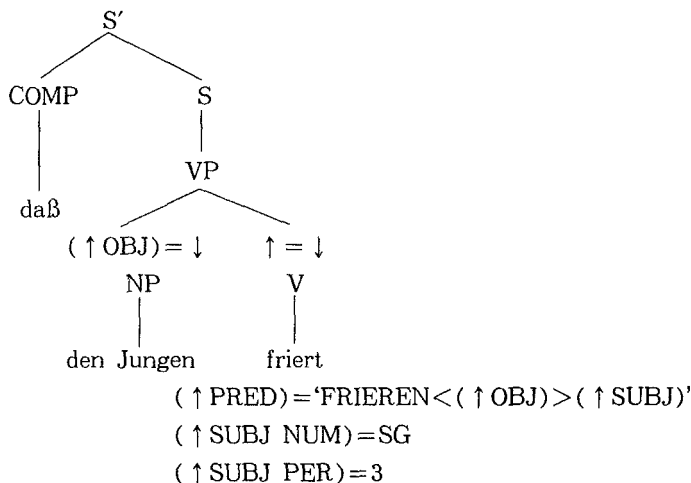
	arbeiten	< Agent >
intrinsic		[-o]
passive	gearbeitet	ϕ
w.f.	gearbeitet	< ϕ > (SUBJ)

arbeiten은 Agent를 논항으로 취하며 고유자질 [-o]를 할당한다. 그러나 수동화를 거치면서 능동동사 arbeiten은 수동분사 gearbeitet로 변하고 수동화 규칙에 따라 행위자가 탈락된다. 다음으로 정형조건은 모든 문장에 주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수동분사 gearbeitet가 논항으로 취하지 않는 SUBJ가 이 수동분사의 하위범주화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SUBJ는 논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휘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다만 통사자질을 가질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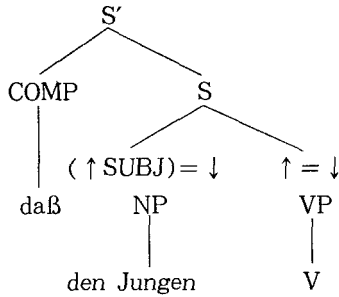
다음으로 (2b-d)의 문법적 주어를 의미역 구조로부터 유도하는 과정을 고찰하여보자. 예를 들어 (2c')의 통사구조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 (28) a. ..., daß den Jungen friert.
- b. ..., daß der Junge friert.
- c. ..., *daß es den Jungen friert.

(28) a'.



(28) b'.



friert

 $(\uparrow \text{ PRED}) = \text{'FRIEREN} < (\uparrow \text{ SUBJ}) >'$ $(\uparrow \text{ SUBJ NUM}) = \text{SG}$ $(\uparrow \text{ SUBJ PER}) = 3$

(28a')과 (28b')을 비교하여 볼 때 동일한 의미를 가진 문장이 서로 상이한 통사구조를 가진 것으로 기술되었다. 즉 (28a')에서 동사 friert는 타동사로서 보족어 den Jungen을 논항으로 취하는 반면, (28b')에서는 동사 friert가 자동사로서 주어 der Junge를 논항으로 취한다.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의미의 동사가 상이한 통사구조에 도입되는 이유를 묻게 된다. 또한 동사의 의미가 통사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28a)와 (28b)의 의미가 같다고 하는 점에서 동사의 의미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사 frieren의 의미역 구조를 단일한 것으로 놓고 frieren이 취하는 의미역의 고유자질을 $[\alpha o]$ 로 그리고 α 의 값을 + 혹은 -로 정할 경우 단일한 의미역구조로부터 상이한 통사구조의 문법기능어들로 어휘적 사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 어휘사상과정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29) frieren < Experiencer >

a. frieren < Experiencer >

intrinsic $[-o]$ default $[-r]$

w.f. : friert < (SUBJ) >

b.	frieren	< Experiencer >
	intrinsic	[+o]
	default	[-r]
w.f.	friert	< (OBJ) > (SUBJ)

(29a)에서 frieren은 자신이 취하는 의미역에 고유자질로 [-o] 값을 그리고 무표적 의미역분류 자질로 [-r] 값을 할당한다. 이 두 자질값의 조합은 결과적으로 의미역 Experiencer를 문법기능 OBJ로 사상시킨다. 다른 한편 (29b)에서는 frieren이 자신의 의미역에 고유자질로 [+o] 값을 그리고 무표적 의미역분류 자질로 [-r] 값을 할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미역 Experiencer로부터 문법기능 SUBJ가 사상된다.

다음으로 (28c)가 비문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허사 es는 SUBJ기능을 갖지 못하며 COMP 위치에서 TOPIC/FOCUS로서 구조에 도입되지만 그러나 COMP가 접속사 daß로 채워질 경우 구조적으로 생성될 수 없다. 즉 독일어의 부문장의 경우 허사 es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28c)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TOPIC/FOCUS가 구조적으로 주어질 수 없는 의문문이나 명령문의 경우 허사 es의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명하게 된다.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독일어에서 통사자질만 갖고 어휘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예문(1a-d)과 (2b-d)의 공범주 주어를 어휘사상이론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2c)에서 동사가 취하는 단일한 의미역이 통사구조상에서 주어와 목적어로 각각 상이하게 사상되는 경우를 보았다. 결국 전통문법에서 문법적인 주어와 달리 심리적인 주어를 가정한 것은 개념구조(의미역구조) 상에서 동사가 취하는 특정한 의미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역은 때로는 주어로, 때로는 목적어로 실현되거나 전혀 어휘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어휘사상이론으로 일관성있게 설명할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 취급하지 않은 예문(2a, e, f)의 비인칭 주어에 관한 기술은 사건이나 행위수행에 관한 의미역 연구에 기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 놓고자 한다.⁶

참고문헌

신수송 (1988) 현대독어학, 교육과학사.

⁶ 날씨나 사건진행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를 위해 현재로서는 Agent와 사전원인의 제공자로서 Actor 따위와 같은 의미역을 구상해 볼 수 있다.

- _____ (1991) 통합문법이론의 이해, 한국언어학회 특강시리즈 2/1, 한신문화사.
- _____, 이해운 (1992) '독일어의 공주어 구문,' 언어 17.1, 한국언어학회.
- _____ (1993) '어휘기능문법,' 80년대 통사 의미론, 이환목·신경구·송경안 편, 한신문화사.
- _____, 류수린 (1995) 어휘기능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 Alsina, A. (1991) 'On the Argument Structure of Causatives,' *ms.*, Stanford University.
- Baker, M. (1988) *Incorporation: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Chang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esnan, J. eds. (1982)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Cambridge, Mass.: MIT Press.
- _____ (1990a) 'Levels of Representation in Locative Inversion,' *ms.*, Stanford University.
- _____ (1990b) 'Relation Changes, Monotonicity, and Universality in Syntax,' *ms.*, Stuttgart University.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IT Press.
- _____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_____ (1986) *Barriers*, Cambridge: MIT Press.
- _____ (1992)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No. 1.
- _____ (1994) 'Bare Phrase Structure,'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MIT. Cambridge.
- Dalrymple, M. (1990) *Syntactic Constraints on Anaphor Binding*,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Eisenberg, P. (1994) *Grundriss der deutschen Grammatik*, Stuttgart, Metzler.
- Fukui, N. (1986) *A Theory of Syntactic Categories*, MIT Doctoral Dissertation.
- _____ (1988) 'Deriving the Differences between English and Japanese: A Case Study in Parametric Syntax,' *English Linguistics* 5.
- Halvorsen, P. K. and R. M. Kaplan (1988) 'Projections and Semantic Description in Lexical Functional Grammar,' *Proceedings Computer Systems*, Tokyo.
- Heidolph, K. E., W. Flämig, and W. Motch (1981) *Grundzüge einer*

- deutschen Grammatik*, Berlin, Akademie Verlag.
- Ishikawa, A. (1985) *Complex Predicates and Lexical Operations in Japanese*, Doctoral Dissertation, MIT.
- Kaplan, R. M. (1987) 'Three Seductions of Computational Psycholinguistics,' in P. Whitehead et al. (eds.) *Linguistic Theory and Computer Applications*, London: Academic Press.
- Kaplan, R. M. and A. Zaenen (1989) 'Functional Precedence and Constituent Structure,' *ms.*, Stanford University.
- Kaplan, R. M. and J. Maxwell (1988) 'Constituent Coordination in Lexical Functional Grammar,' *Proceedings of Coling '88*.
- Larson, R. K. (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19.
- Levin, L., M. Rappaport, and A. Zaenen (1983) *Papers in Lexical-Functional Grammar*, Bloomington: IULC.
- Mohanan, K. (1983) 'Functional and Anaphoric Control,' *Linguistic Inquiry* 14.
- Rosen, S. T. (1989) *Argument Structure and Complex Predicates*, Doctoral Dissertation, Brandeis University.
- Ryu, Su-Rin (1995) *Ereignis-Repräsentation durch Tempus und Aspekt im heutigen Deutsch*, Magisterarbeit, Seoul National University.
- Ryu, Su-Rin and S. S. Shin (1995) 'Thematic Structure and Argument Structure: An Application of Lexical Mapping Theory for Korean,' *Language Research* 31.3, Language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 Sells, P. (1985) *Lectures on Contemporary Syntactic Theories*, CSLI, Stanford University.
- v. Stechow, A. and W. Sternefeld (1988) *Bausteine Syntaktischen Wissens*, Wiesbaden, Westdeutscher Verlag.
- Vennemann, T. (1982) 'Remarks on Grammatical Relations,'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ABSTRACT

Concerning the Grammatical Function of
Subject in German

Soo-Song Shin

The grammatical function of SUBJECT in German cannot be described uniformly in the configurational structure as in English. Traditional German grammar asserts that the grammatical subject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psychological one. However, it was not always possible to find the correct psychological subject, and besides there were no theoretical methods for the derivation of the grammatical subject from the assumed psychological or conceptual subject. Thus I try in this paper to establish some kind of derivational connection between the grammatical subject in the syntactic surface structure and the corresponding thematic role in the conceptual or thematic structures. Several problems are discussed concer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ammatical subject and the thematic roles. In particular I give some concrete arguments for the existence of the empty category in the subject position in German. This empty category has, however, no corresponding thematic role, though it has some grammatical features such as person and number.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thematic roles, for instance [Experiencer], from which two different grammatical functions can be derived as shown in the examples *Der Junge friert* and *Den Jungen friert*. These proble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ammatical subject and the corresponding thematic role are discussed and resolved within the Lexical-Mapping Theory of Lexical Functional Gramma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151-742